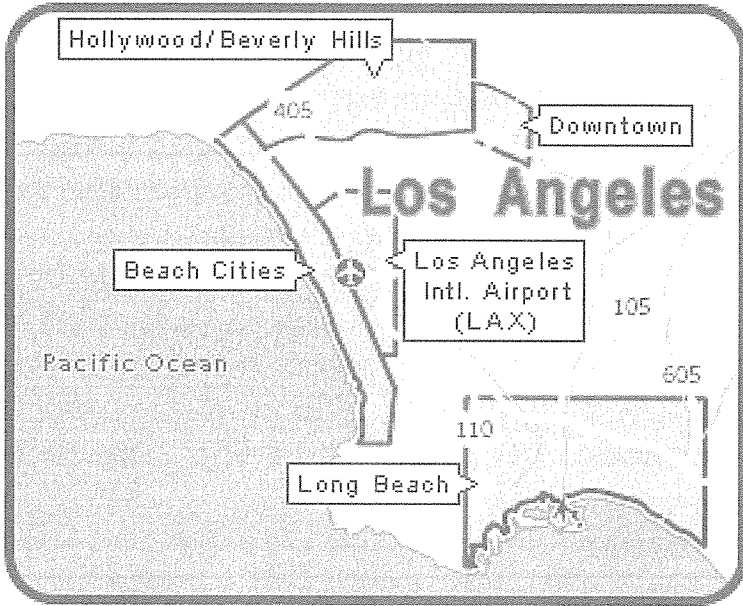




# 미국 LA/LB 항만, 대기오염 권세 부과 검토

## 선박, 항만, 트럭 등 오염배출 삭감계획 발표



도 정해놓고 있다.

대기 오염통제국의 윌리엄 A. 버크(William A. Burke) 의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청정항만 대책 (Clean Port Initiative)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 남쪽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,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있는 LA와 LB 항만, 그리

미국 서안의 남 캘리포니아 대기오염 통제국은 최근 이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선박과 항만 터미널, 트럭 및 기차 등에 대한 배출 삭감계획을 발표했다.

이 기구는 우선 자발적으로 로스앤젤리스 항만과 롱비치 항만당국에 대해 배출 물질 저감계획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한편,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방침이다.

이 기구는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화물운송 산업에 대한 규제조치와 함께 대기환경 정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기금을 징수하거나 컨테이너마다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한다는 방침

고 화물운송부문에서 스모그와 미세먼지, 질소 산화물 등이 100톤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, 이같은 양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운항되고 있는 차량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것보다 많은 수치이다.

